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요 약

-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0년 이후 지난 9년간 아동학대는 전체적으로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가운데 방임과 중폭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뒤를 이은 정서학대는 지난 9년간 6.8배 증가하여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신고건수는 2000년 이후 지난 10년 사이에 1.7배 증가하였고, 15세 이하 여자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세는 더 높아서 같은 기간 3.9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 여자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같은 기간 8배 증가하였다.
- 아동학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아동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아동실종은 지난 4년간 1.3배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율은 지난 10년간 60.8% 감소하였다.

인생의 초기단계인 아동기는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파장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들의 보호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동의 학대 경험은 이것이 초래하는 크고 장기적인 해악에 비추어보아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 되겠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가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될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학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다음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온 국민의 분노를 산 조두순 사건 이후로 비슷한 아동성폭력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만 김길태, 김수철, 장안동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딸아이를 조바심치며 기다리고 있고, 경찰은 급기야 ‘아동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최근에 국민들의 두려움을 급증시킨 아동성폭력에 대해서도 그 실태와 변화 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도 관련되어 있으면서 아동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아동실종과 어린이 안전사고의 실태와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정의가 법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형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료마다 아동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시된 각 표에 포함된 아동의 연령을 명시하였다.

아동학대

〈표 IX-7〉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이 표에 제시된 발생건수는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전화건수 중에서 보호기관이 개입하여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건수를 의미한다.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1년에 2,105건에서 2009년에는 5,685건으로 2.7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언론에서 아동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방임과 중복학대의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임은 2001년에 672건에서 2009년에는 2,025건으로 3배 증가하였고,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는 같은 기간 중에 623건에서 2,238건으로 3.6배 증가하여 방임보다 조금 더 큰 증가세를 나타낸다. 정서학대는 2001년에 114건 발생하던 것이 2009년에는 778건으로 6.8배로 9년간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빠른 증가를 보인 유형은 성학대

〈표 IX-7〉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건수¹⁾: 2001-2009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합계
2001	476	114	86	672	134	623	2,105
2002	254	184	65	814	212	949	2,478
2003	347	207	134	965	113	1,155	2,921
2004	364	350	177	1,367	125	1,508	3,891
2005	423	512	206	1,635	147	1,710	4,633
2006	439	604	249	2,035	76	1,799	5,202
2007	473	589	266	2,107	59	2,087	5,581
2008	422	683	284	2,237	57	1,895	5,578
2009	338	778	274	2,025	32	2,238	5,685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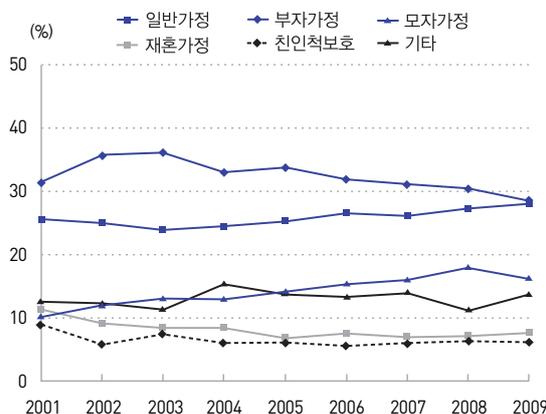
었다. 학대유형 가운데 가장 변화가 적은 것이 신체학대로 2001년에 476건에서 2009년에는 338건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중에서 그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아동을 내 버리고 돌보지 않는 유기로 같은 기간 76% 감소하였다.

아동학대 중에서 피해아동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유기, 성학대, 신체학대를 꼽을 수 있겠다. 이들 유형 가운데 유기와 신체학대는 지난 9년간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성학대는 3.2배 증가하여 감소와 증가가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아동학대가 최근에 들어서 더 심각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최근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중복학대가 어떤 유형의 학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유형별 발생건수에서는 중복학대를 구분했을 때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중복학대가 상당 부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학대의 구성유형을 고려하면, 심각한 형태의 학대유형 중에서 유기를 제외한 성학대와 신체학대가 지난 9년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아동학대가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IX-6]을 보면, 아동학대의 1/4 정도만 친부모로 구성된 일반(온전)가정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3/4 정도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손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가정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부자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그림 IX-6] 아동학대 피해자¹⁾의 가족유형별 구성비율: 2001-2009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많이 발생하였다. 부자가정은 2001년에 전체 아동학대의 31.4%를 차지하다가 2009년에는 28.4%로 감소하였다. 한편 모자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2001년에 10.3%에서 2008년에는 17.9%까지 높아졌다가 2009년에 16.2%로 소폭 감소하였다. 재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2001년의 11.3%에서 2009년에는 7.6%로 전체 아동학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고, 친인척보호 가정도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누구에 의해서 왜 생겨나는 것인가? [그림 IX-7]은 2009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83.3%가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등 부모에 의해서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부모 이외에도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아동학대가 각각 4.0%와 2.8%이고 타인에 의한 학대는 8.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 관계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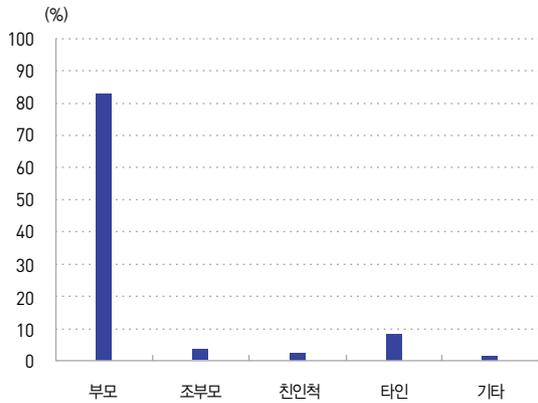
성되는 중요한 인생 초기에 일회적이기 보다 반복적으로 학대가 생겨나기 쉽고 특정한 형태의 학대가 배타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여러 학대가 같이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해악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성장한 이후까지도 그 해악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9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거의 매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4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어떤 부모가 학대를 저지르기 쉽고 동시에 어떤 아동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일까? 먼저 아동학대자의 특징을 <표 IX-8>을 통해 알아보면, 아동학대자는 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방법을 모르고(31.6%),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24.0%), 중독 및 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13.3%)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아동폭력이 주로 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보호자는 경제적인 책임과 가사책임을 배우자의 도움 없이 모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삶에 여유가 없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대적 반응을 보이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계부나 계모가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의 애정 없는 훈육시도가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 피해아동은 적응·행동의 문제(40.5%), 정

[그림 IX-7] 아동학대 피해자¹⁾의 가족관계별 구성비율: 2009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표 IX-8>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징¹⁾: 2009

가해자 특징	%	피해아동 특징	%
양육태도 및 방법 인지 부족	31.6	정서 및 정신건강문제	28.9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4.0	적응 및 행동문제	40.5
가족 및 종교문제	10.0	발달 및 신체건강문제	9.8
중독 및 질환문제	13.3	장애	2.0
성격 및 기질문제	9.4	특성 없음	11.6
어릴 적 학대 경험 및 폭력성	6.3	기타	7.2
성문제	1.2	합계	100.0
원치 않는 아이	0.8		
기타	1.8		
파악 안됨	1.6		
합계	100.0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서·정신건강의 문제(28.9%), 발달·신체건강의 문제(9.8%)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응·행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가출, 거짓말, 도벽 등 청소년 비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이 27.9%, 학습문제 6.7%, 학교 부적응 5.9%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정신건강의 문제로는 주의산만 5.7%, 불안 4.7% 등이 포함되며, 발달·신체건강의 문제에는 위생문제 4.0%와 언어문제 2.6%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아동들은 이처럼 행동상의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문제나 아동의 문제가 상대방을 자극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어느 것이 아동학대의 원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예컨대, 아동의 비행이 부모의 학대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지만 반대로 부모의 학대로 인해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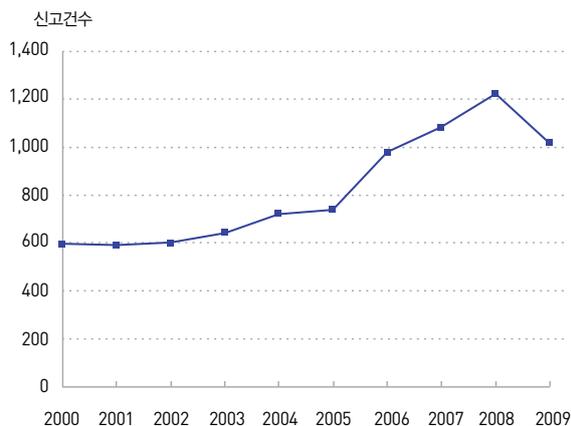
아동성폭력

최근에 들어 아동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의 두려움이 높아졌다. 그 결과 자녀의 등하교 길에 부모가 동행하는 등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자녀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등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어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마저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아동 성폭행 사건들을 면밀히 보면, 김길태가 성폭행하고 피살한 예비여중생, 김수철이 학교에서 납치하여 성폭행한 8세 여아, 장안동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하

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림 IX-8]은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사건 신고건수에 대한 경찰청 자료를 보여준다.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사건은 지난 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에 595건이던 신고건수가 2009년에는 1,017건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00여 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03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 1,220건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에 1,017건으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X-8] 아동성폭력 신고건수*: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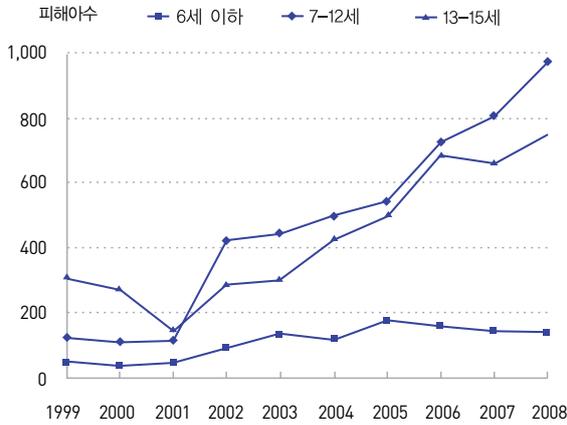


주: 1) 13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연도.

성폭력 피해아동의 연령 변화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을 6세 이하, 7-12세, 13-15세로 나누되,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자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5세 이하의 여자 피해아동수를 살펴보았다. [그림 IX-9]를 통해서 15세 이하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를 전체적으로 보면, 1999년에 482명에서 2008년에는 1,865명으로 3.9배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나누

[그림 IX-9] 연령별 여자 성폭력 피해아동수¹⁾: 1999-2008



주: 1) 15세 이하 여아 기준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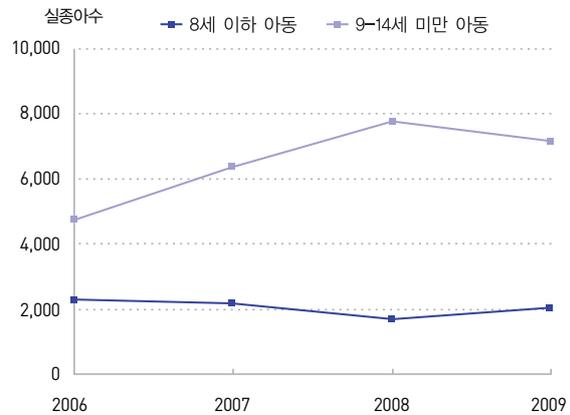
어 보면, 6세 이하의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10년 사이에 2.8배 증가하였고, 7-12세 여자 아동의 피해는 같은 기간 8배 증가하였으며, 13-15세 여자 아동은 2.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7-12세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증가하여 이들이 15세 이하 여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동실종 및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아동학대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아동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아동실종과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이다. 실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보호자의 방임이나 납치에 의한 가해자의 성적 학대 등이 실종과 관련될 수 있다.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도 보호자의 방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아동실종을 [그림 IX-10]에서 보면, 14세 미만의 아동실종이 2006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모두 7,064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했던 것이 2009년에는 9,240명으로 1.3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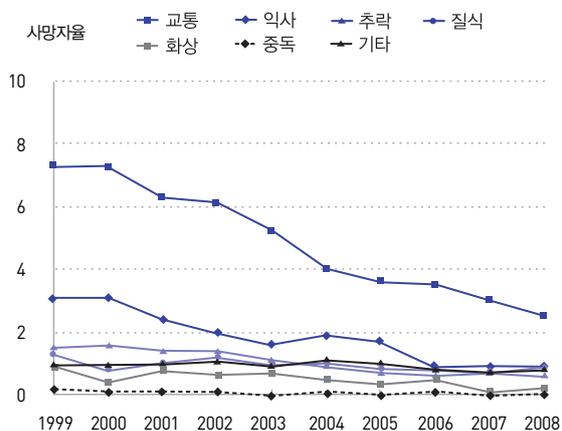
[그림 IX-10] 연령별 실종아동수¹⁾: 2006-2009



주: 1) 14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실종아동을 8세 이하 아동과 9-13세 아동으로 나누어 보면 두 집단 간에 서로 상반된 경향이 관찰된다. 8세 이하의 실종사건은 4년 사이에 10% 감소한 데 반해 9-13세 아동의 실종은 같은 기간 1.5배 증가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 실종사건의 증감추세가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자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수를 나타내는 사망자율을 사용하였다. 지난 10년간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율은 1999년에 15.3명에서 2008년에는 6명으로

[그림 IX-11] 안전사고 유형별 아동 사망자율¹⁾: 1999-2008

주: 1) 사망자율=(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인구수)×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60.8%나 감소하였다. 사고유형별로 아동 사망자율을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익사가 높았다. 추락과 질식의 사망자율은 2004년을 기점으로 자리바꿈을 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추락의 사망자율이 조금 더 높던 것이 2004년 이후로는 질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IX-11).

앞서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방임이 2001년부터 8년간 3.3배 증가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에 방임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이 향상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수홍(경기대학교)